

<엄마의 의자>

- 대본 : 극단 핸드온 (오연주)

▣ 출연자 : 민후남, 김현자, 이명주, 방명숙, 김소향, 배종대, 이선옥, 김순옥, 이서율, 박승화 (출석부 순 / 공동창작 10명 / 출연 9명)

1. 시장

오프닝 음악.

- 엄마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등장하여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며 산다.
- 어린 선자가 등장하여 시장을 두리번거리며 구경한다.
- 두 사람, 각각 객석 쪽으로 내려간다.

- 선자 : (무대에 뛰어들어오며) 엄마~!!
- 젊은 엄마 : (무대에 뛰어들어오며) 선자야~!!
- 선자 : (사람들에게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) 혹시 이렇게 생긴 분 못 보셨어요? 저희 엄마인데요.
- 젊은 엄마 : (사람들에게 선자의 모습을 설명하며) 노란색 치마 입은 요만한 일곱살짜리 여자에 못 보셨어요? 우리 딸인데요.

- 선자와 젊은 엄마 모두 객석으로 내려와서 찾는다.
- 무대 위에서는 영선과 젊은 금애가 등장한다.

- 영선 : (엄마를 발견하며) 어머~! 향순 이모! (선자를 찾으며 두리번거리다)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?
- 엄마 :? 누구세요?
- 영선 : 영선이에요. 윤금애씨 딸. 선자 언니 친구고요. 제가 언니한테 연락할게요. (전화를 걸며 / 신호음 소리)
- 선자 : (전화를 받으며) 어! 영선아! 내가 지금 엄마를 잃어버려서...
- 영선 : 언니! 어머님 여기 계셔. 공유 부엌으로 와.
- 선자 : 정말?! 아휴... 고마워. 지금 갈게.

- 젊은 금애 : (어린 선자를 발견하며) 어머~! 선자야! (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는다.) 너 엄마도 없이 여기서 혼자 뭐 해?

- 어린 선자 : 금애 아줌마.... (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는다.) 어..? 방금까지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... (울음이 터질 듯) 엄마....
- 젊은 금애 : 아이고, 길이 엇갈렸나 보구나. 괜찮아. 이모랑 같이 토마토 먹으면서 기다릴까? (토마토를 하나 따 준다.)

- 선자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온다.

- 선자 : (불같이 화를 내며) 엄마!!! 한참을 찾았잖아! 사람 미치는 꼴 보려고 그래?!!!
- 영선 : (선자를 말리며) 언니...
- 엄마 : (장바구니를 들어 보이며) 아니... 너 내일 소풍 가니까 김밥 싸주려고 장보고 있었지.
- 선자 : 내가 소풍을 왜 가?!!!! (울컥하며) 엄마, 제발 정신 차려.
- 엄마 : 내일... 소풍 안 가? 내일 비 온대?
- 선자 : (장바구니를 받아들며) ...아니야. 이제 집에 가자. 영선아, 고마워.
- 영선 : 아니야. 별일 없어서 다행이다. 조심히 들어가고,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공유부엌으로 밥 먹으러 와. 남이 해준 밥 먹고 싶을 때 있잖아. (엄마에게) 어머니~ 다음에 또 뵈요~
- 엄마 : (토마토를 바라보며) 토마토....

- 선자와 영선, 엄마를 바라봤다가 서로를 바라보며 정지.

- 젊은 엄마 : (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며) 선자야~!!
- 젊은 금애 : 어머! 향순아~~
- 젊은 엄마 : 금애야~!! 우리 선자 못 봤어? 내일 소풍간다 그래서 잠깐 장보고 있는 사이에 선자가.....!!
- 어린 선자 : (토마토를 먹다가) 엄마~!
- 젊은 엄마 : 김선자!!! 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?!! (등을 때리며)
- 어린 선자 : (울면서) 잘못했어요!!
- 젊은 금애 : (말리며) 야, 그만해!! 무사히 찾았으면 됐지!!
- 젊은 엄마 : (주저앉아 어린 선자를 끌어안으며) 아이고, 못 살겠다.

LED 전광판에 제목 <엄마의 의자>가 뜬다.

- 해설 : 치매에 걸린 엄마와 그 엄마를 돌보는 가족들.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. 그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입체낭독극 <엄마의 의자>

2. 선자의 직장

- 사장 : 선자씨~ 이 일 좀 빨리 처리 해 줘.
- 선자 : 네~

핸드폰 벨소리.

- 선자 : (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으며) 네. 아빠. 왜?
 - 아빠 : 선자야, 니 엄마가 또 옷에다 실수를 했다. 아휴.. 정말 죽겠다 죽겠어.
 - 선자 : 아이고, 치우느라 아빠가 고생했겠네.
 - 아빠 : 오늘 언제 오냐?
 - 선자 : 오늘은 일이 밀려서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돼요.
 - 아빠 : 아니, 니가 늦게 오면 나 혼자 하루 종일 니 엄마를 어떻게 보냐.
 - 선자 : 아빠, 죄송해요.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.
 - 사장 : 선자씨~ 여기!
 - 선자 : 아 네! 사장님!! 아빠, 끊어요.
- 해설 : 선자는 매일 가족과 일 사이에서 정신이 없었다. 한 번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, 똑같은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.

신경을 긁는 느낌의 정신없는 벨소리들.

- 선자 : (이를 악물고 빠르게 쏟아내며) 아빠, 지금이 몇 번째야! 아빠가 계속 이러니까 내가 집에 못 가는 거잖아. 이번엔 또 뭔데?!!
- 해설 : 선자는 출근을 해서도 가족들과 딱 붙어있는 것만 같다. 엄마만으로도 힘든데, 아빠의 호소까지 들어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.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날이면 자신이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.

전환 음악.

3. 선자의 집

- 엄마 : (딸을 부르며) 선자야~ 아직도 밥 준비 안 됐어? 배고파!
- 아빠 : 선자 엄마~ 아까 먹었잖아.
- 선자 : (등장하며) 아빠, 무슨 일이에요?
- 아빠 : 니 엄마가 밥을 안 먹었다고 이른다.
- 선자 : 이 밤 중에? (엄마에게) 엄마~ 시계 봐봐. 지금 밤12시잖아.
- 손녀 : (등장하며) 엄마~ 무슨 일이야?
- 선자 : 너도 갯니? 별 일 아니야. 할머니가 밥 내 오라고 그러셔서.
- 손녀3 : 또? (할머니에게) 할머니~ 7시에 저랑 같이 계란국에 밥 말아서 드셨잖아요. 기억 안 나세요?
- 엄마 : 무슨 소리야? 먹긴 뭘 먹어? 저녁 안 먹었어.
- 아빠 : 아이 참! 아까 다같이 밥 먹었잖아!

- 엄마 : 내가 바본 줄 알아?!!!! 난 안 먹었다고!!!! 당신만 먹은 거 아냐??!!!!
- 아빠 : 내가 이러니 미치지. 아이고~~ 죽겠다. 내가 빨리 죽어야 이런 꼴을 안 보지.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, 나랑 같이 죽자, 죽어!
- 선자 : 아빠!!! 그게 무슨 말이야?!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건데 아빠까지 왜 그래?!!!
- 손녀 : **엄마!! 그만 해...**
- 아빠 : 너는 몰라!!!
- 선자 : 아빠...!

- 해설 : 선자는 기억도 못 하고 고집을 부리는 엄마를 보면 답답했고, 괴로워하는 아빠를 보면 속상했다. 모두에게 몸도 마음도 힘든 나날이 이어졌다.

4. 공유부엌

- 영선 : 엄마, 향순 이모는 요즘 좀 어때?
- 금애 : 계속 그렇지 뭐. 아유, 속상해 죽겠다. 나도 치매 걸리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.
- 영선 : 그런 소리 하지 마. 무섭게...
- 금애 : 사는 게 어디 뜻대로 되니? 개랑 나랑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, 그때는 이렇게 치매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.
- 영선 : 그러게.... 그나저나 내가 좀 알아봤는데 치매 등급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봐.
- 금애 : 그래?
- 선자 : (등장하며) 영선아~ 어? 금애 이모도 계셨네요.
- 영선 : 언니~! 잘 왔다. 안그래도 언니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.
- 선자 : 무슨 얘기?
- 영선 :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등록을 하면 좋대. 한번 가서 알아봐.
- 선자 : 치매안심센터?

- 해설 : 선자는 영선이 알려준 대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주간보호센터 등록을 알아보았다. 엄마는 주간보호센터로 가서 돌봄을 받게 되었고, 하루 종일 엄마를 돌보느라 지쳐 있던 아빠는 그 시간 동안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래를 배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.

5. 목공 수업

목공 수업 시간. (뒷 화면에 수업 내용 PPT)

- 선생님 : 안녕하세요~ 목공 수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수업에서는 튼튼하고 편안한 의자를 만들 겁니다. 그 전에 각자 짧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?
- 선자 : 안녕하세요, 김선자입니다. 나무로 무언가 만드는 동안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져서 좋더라구요. 잘 부탁드립니다.

- 해설 :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엄마를 돌봐야 했던 선자는, 마음의 여유를 찾은 아빠 덕분에 퇴근 후에 시간이 생겼고,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목공 수업을 듣기로 했다. 이제는 지친 자신을 돌보고 싶었다.

6. 수봉공원

- 엄마, 아빠와 선자, 금애가 수봉공원으로 봄소풍을 나왔다.
- 선자 : 와~ 이렇게 다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. 엄마~ 엄마도 좋지?
- 엄마 : 좋지 그럼~ 아유~ 꽃이 참 곱다.
- 금애 : 애가 어렸을 때부터 과꽃을 참 좋아했어. 맞다! 시어머니한테 혼나서 울고 있을 때 신랑이 과꽃 선물하면서 위로해 줬다고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.
- 아빠 : 아이~ 뭐하러 그런 소릴 해요.
- 선자 : 왜~! 나는 더 듣고 싶은데?

*** 젊은 시절 회상 : 시집살이

- 젊은 엄마 : (찌개를 들고 들어오며) 어머니~ 여보~ 저녁 드세요~
- 젊은 아빠 : 와~ 냄새가 좋은데~
- 시어머니 : (등장하며) 오늘은 뭐 끓였냐?
- 젊은 엄마 : 시래기국이요.
- 시어머니 : 또? 너는 친정에서 시래기국만 배웠냐? 아휴~ 영양실조 걸리겠네.
- 젊은 남편 : 어머니~ 시래기가 아주 싱싱해 보여요.
- 시어머니 : 시래기가 싱싱하면 그게 시래기냐?
- 젊은 아빠 : 그런가요? 하하하하하~
- 시어머니 : 어이구~ 저 모지리. (국을 한 입 먹고서는) 아유~ 맛은 또 왜 이래?

젊은 엄마, 입덧을 한다. 남편이 놀라서 아내를 챙긴다.

- 시어머니 : 가지가지 하네. 너만 혼자 애 낳냐? 밥도 못 해, 애 가졌다고 유세 떨어~ 상전이 따로 없네. 에이, 입맛 떨어져. (손가락을 탁 내려놓고 퇴장한다)
- 젊은 아빠 : 아이 참, 어머니~ (따라 나간다)

젊은 엄마, 혼자 울다가 주섬주섬 식탁을 정리한다.

젊은 아빠, 뒤에 꽃을 숨기고 돌아온다.

- 젊은 아빠 : 여보~
- 젊은 엄마 : (외면하며) 뉘요.

젊은 아빠는 토라진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계속 애교를 부린다.

- 젊은 아빠 : 오늘 많이 힘들었지? (꽃을 보여주며) 짠~
- 젊은 엄마 : 과꽃? 내가 과꽃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...
- 젊은 아빠 : 당신에 대한 건 모르는 게 없지.
- 젊은 엄마 : 치...
- 젊은 아빠 : 내가 당신한테 더 잘 할게.
- 젊은 엄마 : 약속했어요.
- 젊은 아빠 : 그럼~~ (아내의 배를 어루만지며) 우리 복덩이~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? 너도 나중에 엄마한테 효도해야 한다~ 하하하하~~
- 젊은 엄마 : 아휴~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바보같이 웃지 마요~ 호호호~

젊은 아빠와 젊은 엄마, 과꽃 향기를 맡으며 행복하게 웃는다.

-
- 선자 : 엄마, 진짜 고생 많았구나.
 - 엄마 : 그때는 다 그러고 살았지.
 - 선자 : 근데 아빠가 정말 낭만적이셨네.
 - 금애 : 말도 마라. 이 둘이서 얼마나 눈꼴시러웠는데. 둘이 처음 만나던 날을 내가 옆에서 봤잖아.
 - 아빠 : 아이 참~ 그만 좀 해요!
-

*** 젊은 시절 회상

- 젊은 금애 : (한껏 꾸민 향순을 보며) 야! 이향순~ 너 어디 가? 오늘 좀 예쁜데?
- 젊은 엄마 : 선 보러 간다.
- 젊은 서울 : 뭐?! 너만 선보러 가? 진짜 의리 없다.
- 젊은 엄마 : 아이~ 어른들이 보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. 누가 선 보고 싶어서 보냐?
- 젊은 서울 : 야! 우리도 데려가~~
- 젊은 엄마 : 뭐? 말도 안 되는 소릴....
- 젊은 금애 : 니가 남자 보는 눈이 없잖아. 내가 괜찮은 남잔지 봐줄게.
- 젊은 엄마 : 그럼, 뒤에서 구경만 해라. 앞에 나오지 말고!
- 젊은 금애/서울 : (양쪽에서 향순의 팔짱을 끼며) 가자!

다방 안. 젊은 아빠가 앉아있다. 음악 <잊지 못할 내 사랑> BGM

- 젊은 금애 : (둘러보며) 누구지?... 저 사람인가? (향순을 밀며) 야~! 가봐!!
- 젊은 엄마 : (충선 앞으로 떠밀려 가서) 저... 혹시 김충선...씨인가요?
- 젊은 아빠 : (일어서며) 네! 맞습니다. 이향순씨?
- 젊은 엄마 : 네 맞아요. 처음 뵙겠습니다.

- 젊은 아빠 : 반갑습니다. 앉으시죠. 정말 미인이시네요. 하하하하하~
- 젊은 엄마 : 어머~ 아니에요. 충선씨야말로 정말 잘 생기셨어요. (두 사람 마주 보고 함께 앉는다. 서로를 마주 보며 웃는다.)

- 젊은 금애/서울 : 와~ 저 내숭~!

-
- 선자 : 어머~ 두 분 너무 귀여우셨다. 그 때가 몇 살 때셨어요?
 - 아빠 : 우리가 그때 스물 서너 살이었나?
 - 엄마 : 당신 스물 여섯, 나 스물 둘. 뭣도 모르고 어른들이 시켜서 몇 달 만에 그대로 결혼했었지.
 - 금애 : 뭘 어른들이 시켜서 결혼을 해~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대 놓고는... 아직도 내숭 떠나?
 - 엄마 : 내가 언제! 근데, 배 고프다. 밥은 안 먹나?
 - 금애 : 좀아까 먹었잖아. 애가 그때나 지금이나 기억력이 안 좋기는 안 좋아.
 - 아빠 : 그때 당신 참 예뻐어.
 - 선자 : 지금은?
 - 아빠 : 지금이 더 예쁘지~!
 - 금애 : 아이고~ 그때나 지금이나 눈 뜨고 못 봐주겠네.
 - 엄마 : 선자 아빠, 노래 불러줘.
 - 아빠 : 지금? 여기서?
 - 선자 : 아빠~ 불러줘~!
 - 아빠 : 아이참.... (못 이긴 듯 노래를 부른다)
(현재 아빠) 이 밤도 내 마음 외로워서 추억의 그 밤을 새겨보네.
그대의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사랑의 말들을 찾아보네.
(젊은 아빠와 엄마 함께 등장) 그대 날 잊지 말아요.
추억의 그 밤을 그대를 못잊는 내 사랑
(현재 아빠/젊은 아빠) 언젠가 나를 잊어도 나만은 그대를 정녕코 못잊어 못잊네
 - 해설 : 선자는 엄마와 아빠에게도 봄날처럼 푸른 시절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. 문득, 함께 웃고 있는 이 순간의 행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졌다.

7. 목공 수업

목공 수업 시간. (뒷 화면에 수업 내용 PPT)

작업 소리. 작업을 마치고 만든 작품을 함께 둘러 본다.

- 선생님 : 와~ 다들 멋진 의자를 만드셨네요.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지요. 나이테를 다른 말로는 '연륜'이라고도 부릅니다. 한 살 한 살 충실하게 살아온 나무의 역사가 그려져

있어서겠죠. 우리 인생도 나무와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한 의자가 되겠죠.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- 모두 : 감사합니다~~

- 해설 : 선자는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보며 엄마 생각이 났다. '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의 나이테도 연륜이라고 할 수 있을까?' '그동안은 엄마, 아빠의 품에서 자라왔는데, 이제는 내가 두 분이 쉴 수 있는 의자가 될 수 있을까?' 선자의 마음속에 여러 질문이 떠올랐다.

전환 음악.

8. 공유 부엌

선자가 영선과 함께 의자를 들면서 등장한다.

- 영선 : 와~ 언니 너무 잘 만들었다. 공유부엌 앞에 놔줘서 고마워.
- 선자 : 다들 편하게 앉으시면 좋겠다.

엄마 등장.

- 선자 : 엄마, 다음부터는 쪼그려 앉지 말고 여기 앉아. (엄마를 의자에 앉힌다.)
- 엄마 : (텃밭을 바라보다) 토마토...
- 선자 : 토마토?
- 엄마 : 토마토가 열렸네. 너 어릴 때 시장에서 길 잃어버렸던 거 생각나? 너는 내 속도 모르고 금애 이모네서 신나게 토마토 먹고 있었잖아. 너 무사한 거 보고서 내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었는데...
- 선자 : 엄마...

- 금애 : (등장하며) 선자야~ (의자를 보며) 이게 니가 만든 거야? 멋지네.
- **서울 : 엄마, 진짜 잘 만들었다~!**
- 아빠 : 의자 높이가 딱이네!! 잘 만들었다. 우리 딸 최고네! (의자에 함께 앉는다.)
- 영선 : 와~ 이렇게 두 분이 앉아계시니까 보기 좋다! 선자 언니! 서울아~ 저기 가서 같이 서봐. 내가 가족 사진 찍어줄게.
- 엄마 : (싫은 듯) 사진은 무슨 사진~! (예쁜 포즈를 취한다)
- 금애 : 저 내송쟁이~ 좋~텐다!
- 영선 : 그럼 찍습니다~ 하나~ 둘~ 셋~! 김~치~!!
- 모두 : 김~치~!!

찰칵 사진 효과음. 엔딩 음악과 옛날 사진 영상. 커튼콜.